

나의提言

曹 寧 표

나의 청춘은 책과 씨름하며 시들어 간다. 그러나 이 가지발 천리가 나의 길이 라면 서슴지 않고 「나의길을 가련다」. 도서관계에 몸을 바친지 10개성상의 세월이 흐르 는 동안 느긋한일 답답한일 한심한일의 연속이기는 했으나 때로는 증지도 쾌감도 있어 회고하면 지못 감회가 깊다. 나는 여기서 신세라움을 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양적(量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 힘차 게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도서관 일선생활에서 느낀바 동시에 도서관인들이 공통으로 느꼈리 라고 생각하는 바를 몇마디 주려 보고자 한다.

X X X

첫째 도서관 감독기관이나 운영 실권자가 도서관에 대해서 이해(理解)와 성 의(誠意)가 부족 한것 같다. 도서관 일꾼들은 일이 많다고 싫어 하지 않고 두려워 하지 않는다. 다만 상부에서 이해하여 주지 않고 성의를 보이지 않을때 낙담(落膽)하고 맥이 빠진다.

次, = 조사변전에 내가 또 종종 도서관에 있을때인데 당시 모 시장은 펍 성의를 가지고 있어 감격한 생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한달에도 몇 번 식 도서관을 직접 돌보고 직원들의 고충(苦衷)과 애로(溢路)를 창취하여 다재적을 강구(講究)해 주던일이 생각난다. 상부에서 성의를 시현(示顯) 할때 관원들은 용기가 나고 능률을 올릴수 있는 것이다.

또 상부의 인식(認識)이 부족하다. 그러기에 도서관 통계같은 것을 보면 장서수와 인원의 비례가 엄청나게 다르다. 가령 보유도서 10万 책의 도서관을 10명 미만의 인원으로서 운영(運營)해 나가라면 무 리한 요구 일것이다. 더욱기 인원을 채용(採用)하는데 있어서 정실인사(精實人事)가 자행(恣行)되고 있다. 이사장(理事長)의 누구, 관장의 누구 표위종의 추천하는 누구등을 띄어 놓고 채용하는 결과 관무(館務)는 억망진장이된다.

나는 솔직히 10년외 경험은 가지고도 관무처리에 능란하지 못하다. 도서관 업무란 그리 쉬운것이 아닌데 상부에서 생각하기는 아주 간단한 일로 생각해 버리고 만다. 물론 보조자로서 신인(新人)을 채용할수 있는것이지만 각부분(部門) 즉 사서(司書) 열람(閱覽) 참고업무(參考業務)를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유경험자 내지 도서관학을 전공한 이른바 전문직을 배치해야만 할것이다.

× × ×

둘째로 협회에 대한 요청이다. 협회는 할일이 대단히 많은줄 알지만 우선 도서관법(圖書館法) 제정을 실현하도록 당국과의 결속(折衝)을 적극화 하여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할것이고 다음은 왜 아직 표준분류표(標準分類表) 편목법(編目法)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 처럼 잡다한 분류표(分類表) 편목법(編目法)을 쓰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제자기호(著者記号)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할수없이 재래의 도착순기호(到着順記号)를 쓰거나 두문자(頭文字) 몇자를 따서 쓰고 쓰는 형상이다. 요컨대 협회는 무엇보다도 속히 분류표 편목법 제자기호법 제정(制定)에 획기적 영단을 내리서 갈망질망하는 관계(關係)의 기술업무를 조정 통어 해야 할것이다. 다음 현재 서울안에 만도 업무에 능숙치 못한 관원이 허다한데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충실한 일꾼으로 끌어 올려 주시도록 협회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내 생각으로는 야간을 이용해서 일주(一週)에 두시간 정도의 강좌(講座)를 열어 주었으면 한다. 그것도 하기 어려우면 대토요일 토요 강좌로서 2시간 정도의 관원 재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관원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협회에서 주선해 주어야 할것이다.

x x x

셋째로 우리 자신들의 결의가 굳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불행 하게도 우리 사회 풍조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불량화를 막는 방파제(防波堤)로서 또는 지식을 공급하는 샘(泉) 터
 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유대(紐帶)를 강화하는 중대한 사
 명을 지닌 우리 관권들은 오로지 인류의 행복을 위한 봉사정신에
 투철해야 하겠다.

또 도서관은 결코 즐기고 먹는 직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지
 와 대결하는 전장이다.

방방 곡곡에 도서관을 세우고 합포마다, 도서관을 부설하여 온 국민
 이 도서관 파의 호침이 통하게 될때 우리에게 승리가 올것이다.

대부분의 관권이 주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
 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서 도서관 건설의 초석이 되자

(筆者 國防研究圖書館 分類官)

普通會員募集

國協은 本月報 發刊을 契機로하여 普通會員을 募集하고
 있어오니 希望하시는 分은 申請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會員에게는 本月報 및 앞으로 發刊될 國協機關誌를 微收 贈
 送하며 드립니다.

會員資格: 圖書館, 圖書室, 學校, 其他圖書施設에 勤務者